

POPULAR CULTURE

길과 집

성기완 | 대중음악평론가, 3호선버터플라이 멤버

길의 문화에 대해 제도적으로 무관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민속학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노는 것을 뭐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태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배경과 변화에 무관하지 않은 길의 문화를 세련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육성하는 일 또한 문화의 기술임을 생각해야 한다.

길은 집 바깥이다. 집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길의 문화가 있다. 집의 문화는 오순도순하고, 다정하고, 가족적이며 이기적이다. 집의 문화는 차단의 문화이며 광에다가 쌀을 쌓아놓는 축적의 문화다. 오래오래 살기 위한 문화요, 대대로 남기기 위한 문화이며 집중의 문화, 권력의 문화. 길의 문화는 집 바깥의 문화다. 길의 문화는 비도덕적이고 비가족적이며 이기적인데다가 본능적이며 빨빨이 흩어지고 산산이 조각난다. 길의 문화는 언젠가 집에 가야지 하는 희망을 미래에 던지는 그리움의 문화, 열어젖히고 맞닥뜨리는 문화, 소진의 문화, 자기 한 몸 추스르는 문화, 뜨내기의 눈에서 눈으로, 귀에서 귀로 전해지는 문화, 분산의 문화, 비권력적인 문화다.

그러나 때로 길의 문화가 보다 큰 차원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넓은 길은 시대가 수상해지면 광장이 된다. 길에서도 쉬지 않는 나그네들이 광장에 모이면 민심의 파장이 바뀐다. 창호지 안으로도 그 떨림이 전해져 집안의 민심이 완전히 뒤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뒤바뀐 세상의 소문이 길을 타고 천리를 오간다. 길의 문화는 전달과 연결의 문화다. 그 전파력은 집의 문화 그것보다 훨씬 세다. 길의 사람들은 '배짱이' 이기도 하지만 '꿀벌' 이기도 하다. 그들은 문화의 꽃가루들을 여기 저기 제 몸에 묻혀 전한다.

지역의 색깔과 결합하는 음악

집시는 대표적인 길의 사람들이다. 집시의 천년 여행이 발원한 곳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그들의 방랑이 인도에서 시작되었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도의 편잡지방을 떠나 실크로드의 일부를 타고 흑해 연안에 이른 그들은 다시 서쪽으로,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 멀리 스페인까지 도달하게 되고 남으로는 아프리카, 심지어 아메리카에까지 이르게 된

다. 방랑하면서 좀도둑질도 마다 않는 이들의 '길다운 기질' 때문에 집시 무리가 닿는 곳의 '집의 사람들'은 집시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했으며 자주 박해했다. 집시들은 고통 받았고 슬펐으며 그래서 노래했다. 그들의 노래는 슬픔을 삭이는 슬픔의 노래다.

집시들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다. 자기 것 남의 것이 없어서 자기 음악과 남의 음악을 곧잘 섞는다. 집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음악을 자신이 도착한 지역의 토속적인 색깔과 결합시킨다. 그래서 체코의 집시가 하는 음악이 다르고 스페인의 집시가 하는 음악이 다르다. 물론 집시 특유의 고양감, 한, 그런 것들은 어느 나라의 집시음악에서도 다 살아 숨쉬지만 음악적인 어법을 볼 때 지역마다 지역의 어법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여 동화되어 줌으로써 지역의 '집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렇게 형성된 집시음악 중에서 스페인 지역의 아랍적인 향기와 합쳐진 것이 플라멩코다.

또 집시 음악은 발칸의 브라스와 만나기도 하고 헝가리의 바이올린과 만나 집시 바이올린이 되기도 한다. 집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집시 음악을 천시하다가 그 절절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집시 음악을 자기집대문으로 불러들인다. 그렇게 하여 집시 음악은 유럽 전역의 민속음악과 결합하여 전통으로 남게 된다.

길의 음악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힙합이다.

요즘 힙합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장르이다. 그 파위는 록 음악을 능가한다. 힙합 역시 강력한 결합력을 자랑한다. 미국의 대도시 뒷골목에 사는 흑인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시작된 힙합은 전 세계의 길거리 젊은이들의 애환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그들의 강력한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힙합 음악은 70년대 흑인거리의 '블록 파티(Block Party)'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흑인들은 저녁이 되면 블록의 양쪽을 막고서, DJ와 MC가 주도하는 독특한 댄스파티를 열곤 했다. 이 때 DJ는 두 개의 턴테이블에 레코드를 걸고서 그것을 적당히 mix하는 독특한 방식을 개발했고, MC는 그 리듬에 맞추어 리드미컬한 사설을 늘어놓는 방식을 점차 발전시켰다(물론 이것은 당시의 디스코텍에서도 유행하던 형식이다). 그러한 방식이 음악양식으로 정착한 것이 바로 '랩'이라는 것이다.

처음에 랩은 그저 디스코 음악의 한 하위 장르에 불과했다. 최초의 래퍼로 일컬어지는 '그랜드 매스터 플래쉬(Grand Master Flash)'의 대표곡인 <래퍼의 기쁨(Rapper's Delight)>같은 노래를 들어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흥겹고 쉽게 가는 리듬에, 가벼운 박수소리, 짹짹거리는 커팅을 위주로 한 기타 그 위에 랩이 실리는 것뿐이다.



스페인 지역의 아랍적인 향기와 어우러진 플라멩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변화

이런 힙합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80년대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80년대는 '레이거노믹스'의 시대이다. 레이건의 경제 정책은 철저하게 흑인 계도를 황폐화시켰다. 그는 '별들의 전쟁'을 위한 거대한 군수 프로그램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을 삭감하였는데,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흑인 계도의 하층민들이었다. 흑인 계도는 치안부재의 무정부지역이 되었으며, 수많은 흑인들이 그 '정글' 속에서 죽어간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이르는 반면 전체 인구 중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된 사람 중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0%에 이르렀다. 또한 15세에서 24세에 이르는 흑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48%가 살인이었다(반면 백인은 8%만이 살인이다).

바로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흑인들의 고유한 거리 문화이자 계도문화인 '힙합 문화(Hip-hop culture)'가 탄생한다. 그 중심에는 '랩' 음악이 있었다. 그리하여 힙합은 파티 음악에서 흑인 기층민중의 자기표현 방식으로 거듭나게 된다.

절박한 80년대 계도의 상황을 만나면서 점차 '하드

코어'한 면모를 소유하게 된다. 하드코어 랩의 출발은 뉴욕의 흑인거주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룹 '런 디엠 씨(Run DMC)'는 그 때까지 래퍼들이 즐겨 입던 디스코 풍의 화려한 무대의상을 벗고 운동복 자켓과 모자를 중심으로 한 의상과 보다 차갑고 반항적인 투의 랩을 선보였다. 그리고 '퍼블릭 에니미(Public Enemy)'라는 급진적인 그룹이 등장한다. 힙합이나 집시들의 음악이나 모두 '길' 출신의 음악이지만, 이들 음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르들로 취급받고 있다.

얼마 전 내한하여 LG아트센터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하고 돌아간 뮤지션 고란 브레고비치는 구 유고 연방 사라예보 출신이다. 그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집시의 시간> <언더그라운드> 같은 걸작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음악들의 근간은 바로 집시 음악이었다. 고란 브레고비치 자신은 집시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발칸의 애환을 가장 깊이 있게 담은 음악이 바로 발칸의 집시 음악이라는 점을 깨닫고 집시 음악을 자신의 음악 속에 잘 수용하고 있다. 집시 음악은 발칸 반도에 존재하는 문화적인 복잡성, 여러 종교를 가진 다민족 사회 내부의 애증을 잘 압축하여 반영하고 있다. 브레고비치는

"발칸의 민족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서로의 음악을 여전히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인상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집시는 그들 민족 누구에도 속하지 않는 뜨내기, 길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모두의 문화적 잠재력을 압축하는 종합적인 음악을 하고 있다.



왼쪽 · LG아트센터 <고란 브레고비치 & 웨딩 앤 퓨너럴 밴드 내한공연> 오른쪽 · 뮤지션 고란 브레고비치 연주장면

집시 음악은 이제 거리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화려한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상용 음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음악으로 자리잡았다. 기층민중의 애환을 달래주던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탱고 역시 피아졸라 이후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 홀 음악이 되었다.

길의 문화에 대한 시각변화의 필요성

집시 음악은 이제 거리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화려한 콘서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상용 음악으로도 손색이 없는 음악으로 자리잡았다. 탱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층민중의 애환을 달래주던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탱고 역시 피아졸라 이후 진지하게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 홀 음악이 되었다. 이렇게 따지면 재즈도 마찬가지다. 한 때 뉴올리언스의 선술집, 흥등가에서 흥을 돋우던 싸구려 음악이었던 재즈를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하랴. 재즈는 서양고전음악과 더불어 가장 유력한 콘서트 홀 음악으로 자리잡았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 다시 말해 길의 것들이 콘서트 홀로 들어가는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다. 것처럼 제도화된 이상 길의 것이 애초에 가졌던 순수한 힘이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길의 문화가 집의 문화가 되는 순간, 그 생동감은 많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길의 문화를 무조건 집 안에 가두고 제도적으로 고정시키는 데만 골몰하는 것도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길의 문화에 대해 제도적으로 무관심한 편인 것 같다. 길의 문화를 표본으로 추

출하여 민속학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제멋대로 노는 것을 뭐 그리 대단하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태도가 아직도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의 문화를 바라보는 보다 세련된 시각이 필요하다. 영국에는 많은 인도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영국에서 그들 특유의 인도 전통 리듬과 영국의 첨단 DJ 결합, 테크노 음악을 뒤섞어 개성이 강한 인도식 테크노 음악을 창출해 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길에 존재하는 문화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있었다.

지방 정부가 길거리 젊은이들을 위해 시도한 'DJ 스퀴'에서 인도 계통 출신 젊은이들은 DJ 테크닉을 배웠다. 그 결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첨단 테크노 문화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물론 어려운 공연단체를 위해 지원금을 주는 일은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소중한 다른 일 하나는, 길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서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예술적 실천들에는 늘 길의 욕망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그것들을 육성하는 일 또한 문화의 기술이다. 